

# 지금의 라이프스타일을 되묻는 식환경 교육

글 · 배옥병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학교급식 운동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민들에게겐 희망을’ 이란 슬로건과 직영급식으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실현 등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건강은 바람직한 식사와 깨끗한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며, 천부의 인권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며, 국가 업무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일로서,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 간 매일 한 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지역농업의 생산 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식량 생산과 환경 보전으로 건강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특히 식량안보와 녹지·환경·생명수호 산업으로 다원적 기능을 가지며,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인간과

자연과 환경의 생명 순환, 식사와 건강, 생산과 소비, 나눔과 연음의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가 된다.

## 잇속 늘음의 대상이 된 학교급식

그런데 우리는 무역협상을 위해 농업을 포기하고,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국가 책임인 교육을 기업에 위탁했다. 학교급식을 밥 한 끼 사먹는 정도로 인식하여 의무교육에서 무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이라 하여 별도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식재료 사용 규정도 없어 저급한 식품과 농약 범벅, GMO 등 결코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산물, 간편 요리 인스턴트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기업과 교육 관료의 잇속 늘음의 대상이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잦은 식중독 사고를 겪으며 건강을 해치고 질병에 노출되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먹는 것으로부터 소외 당하고 있다.

식생활 교육은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단순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 유지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동시에 우리 식생활 문화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생활의 세계화로 단조로운 전통적 식생활 패턴의 다양화, 에너지와 영양수준의 개선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고지방, 당분 및 염분 함유식품의 소비 증대로 건강문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도 확산되고 있다.

만성질환과 비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급증과 식생활에서 오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건전한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학교급식 관련 주요 정책은 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 철저,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쌀 등 일부 식품의 급식 지원 등이다. 식사 예절이나 식생활 습관,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의 공급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유입되는 각종 오염 물질(중금속, 잔류 농약, 동물의약품, 성장 호르몬, 산업 화학물 등), 생산과 소비 간의 공간적·시간적·사회적 거리의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식품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들이 보다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과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과 농의 거리를 좁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 식(食), 농(農) 교육운동의 전개

농업은 기초적인 식량 생산, 식품의 안정적 공급, 많은 일자리 제공,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정서 함양, 공동체 문화 형성,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다원적 기능과 공공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공적 위상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이해·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농업이 지니는 소중한 가치와 공공적 성격을 제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량 생산에서 식품 소비, 국민 건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각에서 식, 농 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에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교육들을 진행하였다.

학교급식에서의 시민교육 대상은 학부모, 학생, 교사, 영양교사, 활동가 등이다.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있다. 올바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 관련 심의 사항, 급식소위원회 역할과 활동, 식재료 모니터, 안전한 직영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광우병, GMO,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과 도농교류 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에게 진행된 친환경 농업 현장 체험은 참여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모내기, 오리 넣기, 벼 베기, 탈곡기 체험, 친환경 논에 생물 및 식물 조사하기, 대안마을 탐방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키우기, 전통문화 체험(떡메치기, 황토염색, 새끼 꼬기 등) 등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학교급식의 의미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업의 의미와 이해', '친환경과 관행농과의 차이', '국민농업 - 농업 농촌 이해하기', '친환경 학교급식 사례 듣기', '내가 만드는 친환경 학교급식 토론하기' 등으로 1박 2일 또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강사로 양성된 학부모들 교육 진행

단위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조직된 학부모들은 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었다.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총 10강으로 주 1회, 3시간씩 진행되었다. 1시간 강의, 질의응답, 분반 토론과 준비해 온 숙제를 토론하는 순이었다. 또 '내가 강사라면 이렇게……' 라는 주제로 10분 정도의 개별 발표도 있었다.

내용은 '학교급식운동과 먹을거리', '식약 동원(食藥

同源)', '한국 역사와 문화 속의 한식', 'GMO', '광우병', '단백질 신화 깨기', '식품 첨가물', '논', '생명을 말하다', '로컬 푸드', '감동과 소통이 있는 강의법', '친환경 급식 현장 속으로' 등으로 꾸러졌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20명이었고, 강의 수료 후에는 현장 활동을 하면서 단위학교에서 교육 요청이 오면 파견되기도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주제 및 내용은 '먹을거리와 우리의 몸', '나의 식생활 습관 진단해 보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의 공통점 찾기', '먹을거리로 마인드 맵 해보기', '우리 주변의 먹을거리 살펴보기', '공공의 적! 패스트푸드! - 콜라, 감자튀김, 햄버거의 위해성', '단 거? Danger! - 설탕 위해성 알아보기' (당도 측정, 색소 실험), '바나나우유에 바나나가 없어요! - 과자, 음료의 식품 첨가물 알아보기', '친환경 농산물로 몸짱, 얼짱 될래요!',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산물 직접 먹어보고 이야기 해보기', '친환경 학교급식 안 먹어 봤으면 말을 마세요! -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등이다. 교육을 진행한 후에 실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 < 건강한 몸과 마음 내가 만들어요! >

- 바른 먹을거리 실천카드 만들기
- 식품안전게시판 만들어 보기
-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학교급식 그려보기

- 나만의 식생활 십계명 만들기
- 내가 만드는 친환경 간식(과일아이스크림 등)

#### 학교급식 교육 현황과 사례

학교급식을 매개로 전국에서 진행된 학부모 대상 교육 참여자 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1,000여 명, 전남 지역 960여 명, 전북 지역 300여 명, 부산 지역 2,400여 명 등이다.

영양교사 대상 교육 참여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200여 명, 부산 지역 430여 명, 충남 지역 200여 명, 제주 지역 200여 명 정도 된다. 청소년 대상 교육은 서울 지역에서 초·중학교 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15회 실시되고 있다.

생산자 교육은 충남, 경기, 경북, 나주 지역 등 친환경농업지역의 생산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가 및 강사 양성 교육은 매년 150여 명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모범지역 사례로 제주를 소개한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 라는 가치를 내걸고 도민 발의에 의해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2004년 7월에 제정된 제주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며, 민(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과 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 10% 학교에서 시범 실시를 시작한 제

주는 올해의 경우 253개교 91,200여 명에게 46억4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주요 사업으로는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과 아이들의 친환경 농장 체험학습을 들 수 있다. 체험 학습비는 1인당 500원~5,000원 정도인데, 체험학습 내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딸기 따고 갖고 가기, 고구마 캐고 구워먹기 등으로 진행된다면, 2,000원의 체험 학습비가 필요하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제 소비를 고려하지 않는 생산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외식이나 가공산업 등 식품산업과 식생활의 변화를 무시하고서는 국민의 식생활과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창출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하기에 식생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에서 나는 농식품을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지역 생산 - 소비 연계 시스템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수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직거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영

친환경 농업 현장 체험(모내기, 메뚜기 잡기, 벼베기)



친환경 농업 현장 체험(벼단 나르기, 탈곡기 체험, 줄다리기)





완주군에서의 학교급식 강연

여 생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근거리부터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역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다양한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 전 사회적인 식생활 교육 필요

우리 식생활에는 지방 섭취 과잉과 영양 균형 파괴, 아침 결식의 습관화, 홀로 식사와 따로 식사의 증가, 소아의 비만 증가와 체력 저하 등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성 상실, 먹을거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 부족, 먹을거리의 외부화와 라이프사이클의 다양화에 따른 아이들의 식생활 파악·관리 곤란, 먹을거리에 관한 지식 및 조리기술과 식문화 계승 곤란, 먹을거리의 낭비, 먹을거리의 해외 의존 심화와 자급률 저하 등의 상황에서 식생활 교육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상황은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국민이

심신의 건강을 확보하고 생애에 걸쳐 활발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익힐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운동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아직 많은 아쉬움이 있다. 식생활 교육은 모든 세대의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심신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애에 걸쳐 건전한 몸과 마음을 기르고 온화한 인간성을 기르는 토대가 된다.

근대농업기술은 먹을거리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했지만, 화학비료와 농약의 다량 사용에 의한 토양 악화와 인체 피해, 수자원의 고갈 등의 새로운 환경문제를 초래했다. 또 저장·보관·수송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었지만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문제,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대와 대기오염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가져 왔다. 이처럼 인류가 보다 풍요로운 식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오면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라이프스타일을 되묻는 식환경 교육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식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고, 보다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과 태도, 실행력 등을 몸에 익히는 활동이다. 지금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식생활을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되물을 수 있는 힘을 몸에 익히는 교육이 바로 식환경 교육이다.